

2008. 12. 22(월)

제178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서

— 화합 2009년 힘찬 출발을 위하여 —



속 초 시 의 회
(김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

김강수 의원입니다.

2008 행정사무감사와 2009 당초예산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600여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의 “화합 2009년 힘찬 출발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5분 자유
발언’을 허가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 주민과 행정의 갈등으로 얼룩졌던 무자년 한해를 마무리 하고,
여유와 평화의 상징 소띠 해인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
의회는 집행기관의 사업추진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였는지, 표심에 따라 치우친 의정활동에만 매달리지는 않았는지,
반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고

집행기관은 시의 주인인 주민을 위한 행정, 주민을 섬기는 행정에 소홀함
이나 독선·아집은 없었는지, 주민과 사회단체는 주민자치의 주체로서
의젯함(품위)과 그 역할에 충실 하였는지를 되짚어보고, 버릴 것은 과감
하게 버리고 보완할 것은 철저히 보완해서 어려운 난관을 타개하는데
혼연일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미국의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보호신청과 함께 터져
나온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로 야기된 실물경제의 침체는 가혹한 구조
조정을 예고하는 등 힘든 무자년 세밑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속초시의 올 한해는 어떠했습니까?

대포항 개발사업, 소야벌 도시개발사업, 척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장천마을 교정시설 유치와 같은 주요사업에 대해 해당주민 대(對) 행정, 해당주민 대(對) 일부 사회단체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한해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움츠리고 있는 시민들의 마음을 더욱 씩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을 둘러싼 문제의 발단은 지방화시대를 맞아 행정과 주민이 함께 올바른 주민참여의 여건과 제도를 확립하지 못하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에서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의식개혁을 통해 행정행위에 대한 저항, 혐오시설 설치반대, 일방적 개발사업 반대와 같은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보다는 주민의 의견을 넘비현상으로 평가절하하고 독불장군식 행정을 펼쳐가고 있는데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 시장님께서서는 듣고 계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하다 보니 이성적·논리적인 토론, 타협과 절충형태의 참여보다는 임기응변적 대응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항상 새로운 분쟁·갈등의 양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갖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방자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의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시장의 의지만이 최종결정으로 귀결되는 현상이 반복된다면 주민참여의 여지는 원천적으로 봉쇄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요구에 기민하게 반응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의 의식전환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우리시 공직자들의 의식은 많은 발전적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도 주민참여가 하나의 절차상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기존의 소극적 사고의 탈을 완전히 벗어던지지 못하였기에 시민들은 매우 조바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민참여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는 적극적·능동적 사고 등 주민참여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손쉽게 참여 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민참여의 본래 목적이 주민의사를 행정에 반영하는데 있다면 행정의 전문화·자치화의 강화는 주민참여 행정의 당연한 전제조건이 돼야 합니다.

관료적 행정행태의 병폐인 배타성과 폐쇄성의 비밀행정으로 정보나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꺼림으로서 참여행정의 기본인 공청기능의 취약성을 나타내게 되었고, 또한 참여 부재와 행정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 비협조 등의 역기능을 초래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주민 여러분께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참여는 주민이 적극적 자세를 가져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막상 참여기회가 주어져도 이를 소극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마지못해 참여하는 경향이 많아 참여의 질을 스스로가 떨어뜨리는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쯤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표출되는 각종 사업이 지역발전이나 공공이익을 표방하고 있는 시의 입장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행정수단은 무엇보다 집행기관에 의한 적극적인 행정 정보공개가 선행되어야 하고 반면, 주민들은 아무리 좋은 정보가 공개 되고, 분권화가 실현되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있어도 주민 자신이 자치행정 주체로서의 자각과 주도적인 자세를 가지지 못한다면 주민참여의 질과 양이 향상될 수 없음을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12월 15일 소야별 강제수용 반대위원회 등 4개 단체가 연합한 가칭 ‘속초시정개혁 범 시민연대’ 발대식 현장을 지켜보면서 행정은 주민의 의사와 재산권을 소중한 가치로 삼는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주민들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는 사업을 행정우위의 틀에서 무리하게 추진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 사업추진 단계에서 주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완공을 앞둔 시점까지 피해보상을 재론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행정과 밀접한 사회단체에서 행정의 묵시적인 협조 아래, 행정과 주민 양자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입증 반영하지 못하면서 도시발전을 위한다는 주장만을 내세워 행정의 명분을 뒷받침 하면서, 소위 민·민 갈등을 조장하는 사례가, 과연 도시발전을 위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고, 일부사회단체의 역할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과 행정과의 갈등, 주민과 일부사회단체와의 갈등 요인으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시의 일부 지도급 인사들의 자기중심적인 경솔한 언행에서 비롯된 면 이라든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검증과 의결과정도 거치지 않은 내용을 공·사석을 구분하지 않고 생색내기용으로 남발함으로서 의회의 합리적인 입장정리를 어렵게 하는 등 시장님의 가벼운 언행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시의 통할 대표권자입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 언행을 달리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시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는 신중함과 치밀함 보다는 조급함으로 인하여 7~80년대 행정형태 즉 무엇이든 많이 벌려서 사업 후 경직성 예산증가 등 사후 관리측면은 도외시하고 빠르게만 진행하면 좋다는 식으로 조석(朝夕)간 결정 후 공직자를 다그쳐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해 온 측면도 없지 않았음을 곳곳에서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바야흐로 21세기 주민자치시대란 패러다임에 걸맞게 충분한 계획준비 단계와 주민의견을 수렴하면서 시민의 소중한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정책결정자 그런 시장님을 시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 모두에서 언급했던 소야별 개발사업과 관련한 행정과 토지소유주들과의 대치, 교정시설유치를 둘러싼 장천지역 주민들과 사회단체와의 충돌, 대포항 개발사업에 따른 어민을 포함한 주민들의 보상관련 시장님의 이중성 규탄, 척산온천 개발사업에 따른 주민과 사업자간의 갈등 등으로 얼룩졌던 무자년 한해를 마감하면서 채용생 시장님의 2007년 시정연설 몇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속초지역경제는 어려운 긴 터널을 지나 점차 활력을 찾아가고 있으며 산적해 있던 현안들도 하나 둘씩 해결의 실마리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께 행복을 하나 가득 선물하는 2008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가치중심을 시민 여러분의 뜻에 두고 최선을 다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성원이 문제해결의 핵심이었습니다.”라는 시민과의 약속으로 2008년 새해 문을 연 시장님.

전임 시장께서 11년간 다져놓은 업적은 온데간데없이 평가절하되고 2008년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재정분석 결과 속초시를 최하위 등급인 미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1963년 시 승격 후 45년 동안 우리 속초시가 이와 같은 최악의 평가를 받은 예가 있는지 시민들의 자존심을 이토록 짓밟은 단체장이 있었는지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하나 가득 안겨 줄 것으로 기대에 부풀었던 주민들께 허망함과 허탈함, 반목과 불신의 골만 깊게 파놓은 오늘의 시장님에 대한 평가는 1년 반 후 시민의 현명한 선택 여부에 맡기기로 하고 새해에는 시민, 의회, 집행기관, 사회단체가 다시 하나 되어 어려운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도약의 해가 되기를 염원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